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교양장(場) 연구*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이영미(한림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3. 주체 이데올로기 담론의 징후 |
| 2. 『아동문학』의 창간 | 4. 나오며 |
| 3. 1950년대 『아동문학』의 내면 지형 | |
| 3-1. 독서교육, 창작교육의 구조 | |
| 3-2. 편집진과 작가군의 동향 | |

1. 들어가며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담론에 편입 작동되어야 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을 설정하고 문학 지식인들의 자발적 협력 혹은 강제적 동원 하에 문학장을 형성하여왔다. 체제 주도의 정치사상적 인입이 문학과 그 교육의 현장에 누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교육교양장 연구가 미흡하다. 향후 진정한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 내면화 과정을 이해하고 사상적 인식 격차를 해소하되 북한문학사의 텍스트를 모두 사장(死藏)시키지는 않는 통합교과 연구의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남북한 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812-A00179)

합의 국어교과 나아가 문화교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문학교육의 실재를 고찰해 왔다. 본고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교양장의 지형을 살펴 당시 체제 내의 교육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학제 외 교양¹⁾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우선 해당 시기 문학교양의 권력지형적 특성을 큰 그림으로 그려낸 다음, 각 작품들의 구체적 분석에 따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유기적인 재해석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립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고는 그 첫걸음에 해당된다.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교양장에서는 매개 작가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아동의 교육과 교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레닌²⁾과 고리끼³⁾, 벨린스키⁴⁾의 견해 등이 전범이 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지식인(작가·평론가) 사회에서 합의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식인에게서 ‘아동문학’의 ‘교양’ 기능에 대한 저항 행위가 존재했다. 리순영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학령전 아동문학교양의 기능에 대해 인식론/교양론의 논쟁을 이끌어낸 경우⁵⁾가 그러하다. 이것은 백석의 연대적 논의로 확산되어 결국 문단 전체의

- 1) 필자는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3)에서 학제 내 교육과 학제 외 교양의 영역으로 나누어 북한 아동문학을 살펴 본 바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제 내 교육과 학제 외 교육을 ‘교육-교육교양’으로 정의(239면)했으나 필자는 서술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교육-교양’으로 표현했었다. 여기에서도 ‘교육/교양’이라는 분류방침을 따르기로 한다.
- 2) “레닌은 일찌기 «현대 청소년의 모든 교양, 훈련, 교육은 공산주의 도덕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백석, 「큰 문제, 작은 고찰」,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6. 138면.
- 3)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조선문학』의 1954년 3월호에는 모·고리끼의 글 『아동문학론 초』가 게재되면서, 당시 이론적 토대가 취약했던 북한 아동문학계에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 4) 벨린스키는 “«아동들을 위한 저작은 교양을 위하여 있는 것인바 교양이란 위대한 사업이다. 왜냐 하면 교양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 했다.-셰르게이 미할꼬브/석인역, 『아동을 위한 문학』,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4. 3.
- 5) 김재용은 『증보판-백석 전집』(실천문학사, 2005)에서 학령전 아동 문학에 대한 논쟁이 리원우가 백석의 동시 『뱃배지』등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백석은 자신의 문

맹공을 받고 그들의 자기비판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당시 북한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의 ‘정의’가 엄밀하게 규정되고 공산주의 아동문학의 기능이 재정립되는 과정⁶⁾을 포착해 낼 수 있다.

당시 북한 아동문학의 ‘학제 외 교양’ 영역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아동문학』⁷⁾이 거의 유일하게 담당하였다. 1956년 12월 이후로는 『문학신문』이 그 사회적·정치적 실천에 같이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 1947년 여름 평양에서 창간호를 낸 『아동문학』 잡지는 1957년 당시에는 정서춘이 주필이었다. 그리고 박세영, 송영, 리원우, 윤복진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제2차 작가대회 이후 1956년 12월 6일 윤세평이 주필로 백석이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어 창간된 『문학신문』은 백석의 주도로 아동문학 영역의 문제를 활발하게 다루고, 신문이라는 특성상 광범위하게 독자층을 구축해 나가면서 경쟁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⁸⁾을 통해, 1950년대 『아동문학』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바탕 한 북한 아동문학교양장의 권력지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학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이순영의 문학에 대해 변호하면서 아동문학 특히 유년문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536면)하였다고 말하고, 이후 반종과 투쟁의 일환으로 백석이 1962년 하반기 이후 숙청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사실과 달라 향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아동문학』과 『문학신문』의 교양장 권력 논쟁이나 이에 관련된 ‘리순영·백석 대리원우·리진화·김명수·리효운의 아동문학 논쟁’은 고를 달리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7) 실제 잡지의 표제는 ‘아동문학’으로, 본문 내용이나 여타 신문의 기사에서는 ‘《아동문학》’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띄어쓰기가 혼란스러우나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 『아동문학』 잡지 외에 소년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소년신문(송봉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학신문 역시 아동문학의 행보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 8) 이번에 발굴된 『아동문학』자료는 1954년(1·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955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58년(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59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도의 출판물이다.

2. 『아동문학』의 창간

북한에서 아동문학의 독자층에 대한 정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⁹⁾되어왔다. 1957년 당시의 학술적 범주 규정의 예를 찾아 살펴보기로 하겠다. 8월 8일 『문학신문』에는 김규엽 기자의 『아동심리학연구회』취재기가 실렸다.

작가 동맹에서는 최근에 아동 심리학에 대한 연구회가 있었다. 연구회에서는 다수 아동 문학 작가들의 참가 하에 평양 사범 대학 심리학 강좌장 리 본영이 아동 심리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그는 자기 보고에서 아동들의 시기 구분, 아동들의 성격적 특성, 아동 문학 작품의 문장 구조와 어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그는 아동들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매개 민족들의 사회 제도와 문화, 지리, 경제적 제 조건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때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아동 시기 구분을 그대로 기준하였으나 이는 부적당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당하다고 말하였다. 즉 출생 후 만 1세까지를 영아기,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 탁아소기, 만 3세로부터 만 6~7 세까지를 유치원기(만 3~4세는 초급반, 만 4~5 세는 중급반, 만 5~6 세는 상급반) 만 7세로부터 11~12 세를 인민 학교기, 만 12~15 세를 초중기, 만 15~18 세를 고중기(청년 초기)로, 만 17~18 세에서 만 23~24 세를 성인기로 구분하였다.¹⁰⁾

인용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각 시도 지부들에서 아동문학의 대상에 대해 심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동문학의 대상 독자층 교양에 대해 심리학이라는 다소 심오한 층위의 이론적 접근이 상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백석이 아동문학의 이론 부족과 수준 미달을 질책하는 글을 발표한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방위적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논리적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인용문의 규정에 따르면, 만 15세(초중기)

9) 북한 아동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필자의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234-235면과 『북한 문학교육의 동향 고찰』(『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4)의 183-184면 참조.

10) 김규엽, 『아동심리학연구회』,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8. 8.

까지가 1950년대 아동문학의 대상 독자¹¹⁾라 할 수 있겠다.

건국 초기 북한의 아동에 대한 교양을 주도하는 『아동문학』의 창간 당시에 대한 설명은 강효순의 글 「《아동 문학》창간 열 뫼을 맞으며」¹²⁾를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1947년 여름, 《아동 문학》창간호가 나온지 며칠 후에 나는 해방 후 처음으로 평양에 올라 와서 박세영, 고강훈, 리원우, 송창일 동지들을 만났다. 강훈 동무는 내 이름만을 보았을 때에는 나를 너자인 줄로 알았다고 하며 웃는 것이었다... (중략)... 당시 아동 문학 전문 작가는 4~5 명에 불과하였고 타부문 작가들로서 아동 문학에 동원되는 이들이 10명 내외였다.

타 분야에서 지원하는 작가를 포함하여 아동문학을 창작하는 이가 10명 내외였던 초기의 환경에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고 평가한 강효순은 아동문학 전문 작가가 10년 전에 비하여 8배로 성장하였으며 타 부

11) 정룡진의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문예출판사, 1991)에 따르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시대 아동문학의 사명과 특성을 밝히시고 창작실천에서 그것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한편 청년 첫시기 독자들을 위한 문학창작과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성인용작품과 민족고전작품을 개작윤색하고 세계고전문학을 아동들에게 옹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청년 첫시기에 이른 독자들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낮은 학년의 어린이들과는 연령심리적특성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중략)... 그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맞는 문학령역이 새롭게 탐구되어야 하며 그러한 문학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지난 기간 창작실천에서는 청년 첫시기 독자들의 심리적으로에 맞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지 못하였다./아동문학이라고 하면 주로 학령전 유년층어린이들과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저급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썩여지는 문학으로 간주되었고 어른들을 위한 문학에서는 사춘기를 넘어선 청년들과 중년 및 장년기의 성인들의 생활이 기본으로 취급되었다”(229-230면)고 한다. 이를 극복하고 청년 첫 시기 문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가 1986년 5월 17일 문학예술부문 일꾼들과 한 담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고등중학교 낮은 학년 3학년 뿐 아니라 높은 학년까지 고등중학교 학생 전체가 공식적으로 아동문학의 독자로서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12) 강효순, 「《아동 문학》창간 열 뫼을 맞으며」,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7. 18.

문 작가로서 『아동문학』에 집필하는 작가가 80여 명으로 확장되었다면서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신인 육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57년도 “《아동 문학》창간 10주년 기념 문예 작품 현상에 7천 여 명이 응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아동 문학의 대렬이 그 얼마나 큰 밑바탕을 가지고 장성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편집부에 쇄도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편지들과 독자회들에서 반영되는 《아동 문학》의 기본 대상인 소년단원 층에서의 절대적인 긍정적 반영은 물론이거니와 교원, 어머니, 민청원들 속에서도 《아동 문학》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이 잡지가 아동문학교양장에서 유일하고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아동문학교양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12일 이후부터라는 것이 강효순의 증언이다.

1953년 7월 12일 우리 당의 배려에 의하여 소집되었던 아동 문학 관계자 회의와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제5차 상무 위원회는 전반적인 조선 아동 문학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잡지 《아동 문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새로운 획기적 계기로 되었다./중전에는 계간으로 되어 몇몇 아동 문학 작가들의 동인지인 듯한 성격을 띠고 발생되었다면 이상 회의들이 있는 후 1954년 1월호부터는 월간 잡지로 출판하게 되어 필자 진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 문학의 활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폭넓게 조성되었으며 오늘까지 통권 56호를 계속하게 되었다.

인용문에서 보면, 1954년 1월부터 『아동문학』은 월간잡지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4년 1.2월호’¹³⁾가 합본 형태로 나왔다. 계간지에서 월간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형태인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인 월간잡지로 출판된 것은 ‘1954년 3월호’부터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표방한 바와 다르게,

13) 실제 『아동문학』의 ‘1954년도 1.2월호’ 합본에는 “계간 『아동 문학』은 금년부터 월간 잡지로 되었으니 독자 여러분은 중앙 및 각도 출판물 보급 사업소 또는 시, 군 체신부 혹은 리 우편국에 계간을 월간으로 다시 구독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작가동맹출판사”(101면)라는 ‘알림’글이 게재되었다.

당시 인쇄중이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간행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아동 문학》의 부수와 페이지의 증가 그리고 편집 체제를 보다 다양하게—표지도 좀 두껍게, 삽화는 더 많이 아름답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자들은 첨가하여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요구는 공화국 전체 소년들의 희망이며 요구》라고 하였다”¹⁴⁾는 점에서, 독자가 아동문학 잡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부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아동문학』은 “《카프》의 영향하에 발행된 《별나라》와 《신소년》은 우리 아동 문학의 고귀한 전통이며 보물고”¹⁵⁾라는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프 작가 박세영을 비롯한 리원우, 김우철의 지대한 역할을 바탕으로 카프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발전은 부르조아 아동문학과의 투쟁을 통해, 즉 “건결한 조선 아동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경향들과 투쟁하며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튼튼히 립각한 《카프》아동 문학을 계승 발전시키며 선진 쏘련 아동 문학을 대담히 섭취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¹⁶⁾이라는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환경에 비추어 아동들을 계급식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 집단 정신으로 훈련하며 로동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불타는 심정으로 아동들을 교양하는 것은 우리 아동 문학 앞에 나선 초미의 과업”¹⁷⁾이라는 점이 당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아동문학』잡지의 목표였다.

사실상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북한 자료를 방대하게 비치하고 있는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아동문학』 잡지를 1981년 1월호(누계 309호)부터 소장하고 있다. 북한 건국 초기의 아동문학교양장의 자료는 부재했다. 그래서

14)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요구—《아동 문학》 독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6. 12. 6.

15) 강효순, 앞의 글.

16) 강효순, 위의 글.

17) 강효순, 위의 글.

필자는 그동안 중국에 산일되어 있었던 『아동문학』의 희귀 자료를 일부 구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부족하나마 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형성 초기인 1950년대 아동문학교양장의 지형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3. 1950년대 『아동문학』의 내면 지형

3-1. 독서교육, 창작교육의 구조

당시 독자들은 공산주의 교양의 함양을 위해 문학적 열정에 사로잡힌 긍정적 인간형을 지향했다. 1954년 학교 내 문학씨클의 소식을 보거나 1959년 4월의 개인적 연구의 집념을 보이는 독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그것은 동일한 열망이었다. 특히 1954년 4월과 5월에는 이러한 열정을 지닌 학교의 문학씨클 사업 소식이 대대적으로 실렸던바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양 제 2 중학교 문학씨클 반장 고창규는 1954년 4월 『우리 학교 문학 씨클은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는 글에서 “1. 우리 문학 씨클의 조직은 2. 『문학 씨클의 밤』조직 3. 작가 선생님들의 이야기 듣기와 독서 발표 4. 『문학 씨클』의 날 5. 씨클 조직에서 얻은 경험과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목차의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1954년 5월 순천 사범 전문 학교의 강홍일은 『우리 학교 문학 씨클에서는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에서 “1. 조직 구성은 2. 독서를 위하여서는 3. 직접 작품을 쓰기 위하여 4. 씨클 모임에 대하여 5. 현지 견학 조직”을 보고하였다.

①우리 문학 씨클이 강화되게 된 것은 지난 날 우리 학교 내에서 조직한 수령의 탄생지 만경대를 방문한 사업에서부터 더 한층 열성적으로 사업하게 되었다...(중략)...문학 씨클 운영에서 작가 선생들의 친절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나는 우리 문학 씨클원들이 작가 선생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얻은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작가 선생을 모시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씨클원들의 한결 같은 희망이다. 우리 씨클에서

는 수시로 이런 조직을 하고 있다.¹⁸⁾

②한 가지 곤란한 것은 학교 소재지가 지방인 것만큼 책들을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조선문학』이나 『아동문학』도 우편국에 가서 청구했었으나 부수가 모자라서 못본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 문학 씨클에서는 학교 도서실을 리용하는 한편 『씨클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씨클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들을 모아서 비치해 놓고 서로 돌려가면서 읽게 한 것인데...(중략)...지난 학년도만 하여도 씨클원들의 작품은 극히 적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새 학년도에 들어서자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많은 씨클원들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씨클 지도원 선생을 비롯하여 씨클 책임자 또는 핵심적 동무들의 노력에 의하여 『문학에 관한 강연회』, 『작품 합평회』 및 『연구회』, 『씨클원 작품 발표회』 등을 여러 차례 가졌을 뿐 아니라 『아동문학』 14집에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실린데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작품 수는 60여편에 달합니다...(중략)...그러나 이 작품들은 적지 않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작가 선생들을 직접 모신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만 지역상 관계로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중략)...우리 학교 문학 씨클에서는 『씨클 벽보』를 발행할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지만 아직 한 호도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발행하되 그 내용은 씨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일제(합평회, 서적 구독, 작품 창작)와 그 성과 및 계획들이 들어갈 것이며 씨클원들의 작품도 게재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이 우리 학교 문학 씨클 사업 정형을 말하면서 끝으로 우리 학교는 중앙에 있는 학교들과 달라서 작가 선생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¹⁹⁾

인용문 ①은 평양 시내의 한 중학교 문학씨클의 활동을 전하는 것으로서, 박민범, 송창일, 리호남을 비롯하여 김조규, 김순석, 천청송, 리순영, 윤복진 등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 모임을 하거나 자신들의 작품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씨클 활동 사업을 소개하였다. 인용문 ②는 한 지방의 사범전문학교의 문학씨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내부에서 이론적으로 규정된 아동문학

18) 고창규, 『우리 학교 문학 씨클은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4. 51-55면.

19) 강홍일, 『통신란—우리학교 문학 씨클에서는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5. 44-47면.

대상 독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 청년층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지역과 중앙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교양적 격차에 작동되고 있는 북한 내 현실을 불편하게 고발하는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이 당의 ‘붉은 편지’에 의한 작가의 현지 생활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더욱 추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활성화되던 아동 및 청소년의 문학씨클 사업은 대체적으로 독서교육과 창작교육의 구조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독서교육으로 인해 증진되는 창작 능력은 아동들에게 뛰어난 ‘작품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고무시켰다. 이것은 오히려 『아동문학』 집필 작가들에게 평가 혹은 평론에 대한 부담을 크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 씨클 동무들에게/씨클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부터 작품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에 류의하여 주십시오./1, 개별적으로 보내지 말고 씨클 모임에서 널리 토론한 다음 선생님의 손을 거친 뒤에 보내주십시오./2, 선생님들은 합평된 작품 중에서 가작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을 골라서 보내주십시오./3, 보내는 작품에 대하여서는 씨클 책임자 또는 지도원 선생의 간단한 의견을 첨부해 주십시오./4, 한 장에 여러 작품을 쓰지 말 것과 매작품마다 주소, 성명(학생인 경우에는 학년별, 선생의 작품일 경우에는「교원」이라고)을 똑똑히 밝혀 주십시오./조선 작가 동맹 아동 문학 분과 위원회²⁰⁾

1954년 5월 권말에 위와 같이 동맹 위원회의 공식적 문서가 게재되었을 정도로, 학교 문학씨클 사업 내용 보고는 아동 독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동시에 독자들이 문학 열정에 못 이겨 무분별하게 투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5월 이후 학교 내의 문학씨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소식은 게재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59년까지도 아동 문학 독자들의 독서와 창작의 열정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그 후 통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독자들의 소리로 알 수 있다. 실제로 편집위원회는 1958년 9월호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의 목소리를 게재하기

20)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5. 76면.

로 방침을 정하였는데, 그 중 1959년 4월호의 교원 독자의 목소리와 5월호의 개성 지구 독자 모임의 현황 전달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우리 후대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참다운 역군으로 교육 교양하는 다의 교육 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친근한 벗이며 생활의 안내자인 《아동 문학》을 나의 교육 사업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다./나에게는 《아동 문학》한 해 묶음 다섯 책이 있다. 그것은 해마다 선달 그믐날 일 년 분의 《아동 문학》을 한 책으로 묶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책들에는 작품 분석표가 붙어 있다. 그것은 매 책을 받으면 첫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읽으면서 주제, 잔르별로 분석하고 등장 인물, 사건, 장소, 시대 등을 밝혀 적은 것들이다./이렇게 만든 작품 분석표가 1954년도 분부터 오늘까지 정비되어 있는데 이것만 들추면 5개년 간 《아동 문학》에 게재된 작품 정형을 일목료연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다. 나는 이것을 나의 교재 연구, 과의 교양 사업과 밀접히 연관시켜 활용하기 때문이다.²¹⁾

인용문은 함북 서흥군 화곡중학교의 교원 리의찬이 보낸 글을 게재한 것이다. 『아동문학』잡지가 아동들의 독서교육, 창작교육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원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부교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상독자가 교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활발한 독자층의 확대와 관련하여 『아동문학』자체 내의 소개글 뿐 아니라 『문학신문』에서도 『아동문학』독자와 작가들의 좌담회를 간간히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①11월 23일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소회의 실에서는 《아동 문학》편집부 주최로 독자들과 작가들 사이에 좌담회가 진행되었다./평양 제 1 녀자 고급 중학교 초급반 3학년 김 수자 외 35명의 독자들과 작가 21명이 참가한 이 좌담회는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독자들은 한결 같이 도식주의 작품을 《재미 없다》는 한 말로 평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특히 아동 문학 집필진이 고정돼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작가들이 아동 문학 창작에 참

21) 리의찬, 『독자의 목소리—나는 《아동 문학》을 이렇게 리용하고 있다.』,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4. 102면.

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독자들은 아동 문학의 주제와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력사 소설, 과학 소설과 동화, 수수께끼동요, 아동극, 우화 서정 서사시, 탐정 소설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등을 더 많이, 더 재미 있게 써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초·중·3학년 정도에 알맞은 문학 작품이 극히 적다고 하였다.²²⁾

②《아동 문학》 창간 10주년과 관련하여 아동 문학 편집부에서는 독자들과 작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윤 두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아동 문학 작가들과 평양 시내 초·고·중, 인민 학교 및 평남 대동 제 1 중 및 창덕 인민 학교들의 문학 씨클원들과 교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어린 독자들은 한결 같이 《아동 문학》이 자기들의 정서 생활에서 훌륭한 교양자로 되고 있다는 것과 작가들이 쓴 흥미 있고 교양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였다.²³⁾

위 인용문 ① ②는 당시 독자와의 상호소통이 활발한 아동문학계의 내부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독자들은 장르의 편향성과 더불어 집필진의 비개방성 등을 문제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폭넓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인용문 ②는 이전의 예시들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문학씨클 조직이 학제 내 교육의 영역에 구성되어 교양장과 호환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독서와 창작교육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열의가 역사적으로 확대·심화되어가는 아동문학교양장의 내적 추동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증적 지표들이다.

1954년도 『아동문학』에서는 주로 기성 작가들의 창작된 작품만을 다루었지만, 동시에 독자의 투고된 작품도 잡지의 말미에 다루면서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해 주는 기성 작가의 작품평들 역시 주요 편집방향이었다. 1954년 12월호의 말미에는 박세영의 「1954년도 씨클 작품들에 대하여」라는 논평도 게재되었다. 그리고 1955년도 12월호 말미에는 리원우의 「1955년도 씨클 작품들에 대하여」와 「1955년도 『아동 문학』독자 모임에서」라는 편집부의 한

22) 기자,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요구—《아동 문학》독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6. 12. 6.

23) 기자, 「아동들과 작가들과의 상봉」,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8. 8.

해 평가의 글이 동시에 실렸다. 그러나 1954년에 성황을 이루었던 기존 작가들의 써클 작품에 대한 평²⁴⁾은 1955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4월에 강효순의 창작 단평, 6월에 윤복진의 창작 단평, 9월에 박태영의 창작 단평, 10월과 12월에 리진화의 창작 단평 등 그 수는 매우 감소하였다. 그만큼 미래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문학 능력이 향상되어가고 있거나 관심도의 표명이 지나치게 뜨거워 기존 작가들에게 업무적 부담을 지웠거나 아니면 새로이 문학장에 진입하려는 독자대중의 작가적 역량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작가 위주의 위계 구조에서 ‘독자’의 위세가 부상(浮上)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아동문학』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54, 5년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후 독자의 위상은 점차 강화되어갔고 기성 작가는 부패와 안일과 타성의 집단으로 규정되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성 작가 집단의 자체적 반발은 작가의 문학적 권위를 역으로 드러내려는 정치적 실험과 동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서교육과 창작교육을 통해 교양이 증폭되는 독자의 위상 변화는 실제 기성 작가군의 입지적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호 내면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편집진과 작가군의 동향

1957년 8월 1일의 『문학신문』에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문학 작품 <독서조>를 어떻게 조직 운영할 것인가』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게재되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작가들은 자기들의 온갖 재능과 정력을 기울여 인민에게 복무하고 있으며, 허다한 작가들이 인민의 정신적 영양제로 되는

24) 1954년 4월호 『아동문학』5월호에는 “여러분의 잡지 『아동 문학』에 독자 동무들의 통신란을 설치하오니 동무들의 소식을 많이 보내주세요.//★문학 써-클의 활동에 대한 소식/★알고 싶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아동 문학』편집에 대한 의견들//조선작가동맹출판사편집부”(67면)라는 내용을 담은 “통신란을 새로 뒀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 있었다. 아동문학 작가와 독자 사이에 상호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때이다.

우수한 문학 작품들”을 활발히 출판하는데, “대중 속에서의 문예 서적들의 독서 상태는 아직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자연 성장성에 맡겨지고 있으며 간혹 독서조들이 조직 되어 있는 데서도 그 운영 방법이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수한 문학 작품들을 대중 속에 침투시킴에 있어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에게 대중 속에서 독서조를 조직케 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운영케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긴급히 제기”하고 있다.

독서조 사업의 경험이 아직 부족한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조직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작가들의 직접적 참가 하에 진행한다./첫째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공장, 농촌에 현지 파견되어 있는 작가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독서조 사업을 지도 방조한다./둘째 단계에 있어서는 평양에 있는 작가들까지 일정하게 선택된 공장, 농촌 등에서 이 사업을 조직 진행한다./세째 단계에서는 1, 2, 단계에 들어 가지 못한 공장들을 상대로 전체 작가들과 공장 씨클원들을 발동시켜 진행할 것이다./2. 문학 작품 독서조에 대한 지도 체계//독서조에 대한 조직과 일상적인 지도는 해당 직장의 직맹 단체와 민청 단체가 담당하게 된다./작가 동맹 지부(반)에서는 항상 자기 도의 독서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광범한 작가들을 동원하여 독서조 사업을 방조하며, 특히 독서조가 작품을 옮겨 선택하며 읽은 작품에 대하여 옮겨 리해하고 감상하도록 노동자, 농민을 방조하는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출판물들은 독서조 사업 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며 문학 작품 선택과, 독서조의 조직 운영과 감상이 옮겨 진행되도록 조직 선전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독서조 사업이 한개의 강력한 문화 계몽 운동으로 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²⁵⁾

문학작품 독서조의 운영 방법과 문학작품 독서조에 대한 지도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이 인용문은 작가들이 인민들의 교양을 방조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대적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것은 독서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작가’는 작가학원을 통해 양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작가 집단의 논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25)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문학 작품 《독서조》를 어떻게 조직 운영할 것인가』,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8. 1.

① 지난 4월 1일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직속 작가 학원 제 5기생 입학식이 진행되었다./입학식에는 윤 두헌 부 위원장을 비롯하여 작가 동맹 출판사 각 주필들 그리고 작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또한 작가 학원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였다.²⁶⁾

② <<뻑-뻑-뻑->>/병아리는 뒹알지게 울었다./정수와 정옥이는 못박힌듯 병병하니 서 있었다./<<정수야, 놀랄게 없다. 솔직하고 정직한 너의 행동으로하여금 병아리를 이대로 오게 한 것이다. 자 이 편지가 바로 어제'저녁 승무원이 보낸 편지다. 이제 방금 역에서 아저씨가 왔다 갔다.>>/정수는 날개라도 돋친듯 하늘로 날아 오를 것만 같았다./정옥이의 얼굴에도 해실해실 웃음이 꽃피었다./<<뻑-뻑->>/병아리는 제 집에 찾아 온 기쁨을 노래나 하듯 짹짹거리며 광우리를 뱅뱅 돌았다./맑은 창문으로 들이비치는 아침 해'살이 방안을 금'빛으로 환히 물들였다.²⁷⁾

인용문 ①은 전쟁 이후 1954년경 작가학원이 설립되어 1기생을 배출한 후 5기생을 맞이하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다. 인용문 ②는 작가학원의 학생 변 덕주의 소설이다. 할머니에게서 병아리를 얻어 학교에서 키우려고 했던 정수와 정옥 형제는 동물을 태울 수 없는 기차 탑승 규정을 모르고 기차에 탄다. 출발한 후에야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수는 승무원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소년단원으로서의 정직성을 지닌 채 갈등하던 정수는 결국 승무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병아리를 빼앗긴다. 정수의 정직성을 높이 산 승무원이 나중에 학교로 병아리를 갖다 주는 내용의 아동소설이다. 이것은 『아동문학』지 확보된 자료에서는 유일하게 실린 작가학원 재학생의 글이었다.

밤 하늘에 별들은 아름답고요/달 빛에 산 등이 흰히 밝은/아름다운 구월 만경대의 밤/타오르는 우등불 가운데 놓고/재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풀 숲에 벌레 소리 재미나고요/개울에 물 소리 듣기 좋지만/그보다 더 좋고 재미 있는/원수님 어린 때 이야기를요/원수님 삼촌 어머님께서 듣고 있지요//삼촌 어

26) 기자, 「작가 학원 제5기생 입학식」,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4. 3.

27) 변덕주, 「병아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6. 59면.

머님 이야기가 어찌 재미 나든지/밤 가는줄 모르고 듣고 있지요/비껴 있는 등근 달도 듣고 싶은듯/어느새 머리 우에 와 있어요/밤 하늘에 별들도 반짝거려요²⁸⁾

아동문학 작가들이 드물었던 1954년만 해도, 위 인용문의 평양 2중학교 김광수 학생의 동요 「만경대의 밤」, 평북 삭주군 온천 인민학교 김정숙 학생의 동요 「오빠 사진」, 고부 공장 기계 조립공 김순일의 동요 「나는 장갑을 떠요」 등이 ‘문학씨클원 작품’이라는 구별 표식 없이, 기성 작가인 김순석의 동요 「짜작나무 한 그루」나 윤복진의 동요 「오늘 아침 순남이」와 대등하게 게재되었다. 그러나 1959년 1월호를 살펴보면, 씨클원들의 작품은 ‘현상 당선 및 씨클 작품’²⁹⁾으로 따로 편집되어 묶여 나오고 있었다.

실상 기성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문단의 제도적 등단 방식을 통하여, 즉 진입장벽을 만들어 대중들이 더디게 작가군에 편입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을 ‘속도전’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권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중들이 문학을 통해 공산주의 교양으로 무장한 전사로 변모되기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1950년대 아동문학 작가는 아동 독자를 교양하며 작가로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의 작가화(化)를 경계하고 배제해야 하는 모순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상 독자대중의 역량 강화는 작가들에게 진보적 위협이었다. 그러나 독자들은 위상 변화를 원했고 기성 작가 인텔리들은 권위적 입지의 고수를 원했다. 이러한 예견된 갈등 상황에서 독자들은 기성 작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권위를 해체할 것이며 작가들은 독자의 미성숙을 훈계조로 질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① 씨클원-신인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그들이 자기 생활에서 체험한 새롭고도 진실한, 그리고 생동하고도 쾌기 있는 문제성을 들고 나오는 데 있다./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투고해 온 많은 씨클원-신인들의 산문 작품들이 그렇지 못

28) 김광수, 「만경대의 밤」,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1·2. 45면.

29) 순서는 전영식의 「어머니(소설)」, 편집부의 「씨클 작품을 추리고 나서」, 김병혜의 「토끼 동산(동요)」, 윤복만의 「뚝잔치(동요)」, 김명호의 「해님의 선물(동요)」, 김승길의 「둥글박(시)」, 최성린의 「돌아서 가는 길 멀면 어때요(시)」였다.

하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거개가 이미 작가들이 이야기한 문제들을 반복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중략)…이상과 같이 씨클원들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결함들을 들면서 신인답게 새 현실 속에서 버려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들고 나오도록, 새롭게 전변되어 가는 현실을 예리한 눈으로 보며 연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작가들이 탐구해 낸 문제들의 뒤흘무늬를 따라다니며, 그것을 본따서 작품을 만들려는 경향은 신인들에게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다음 학생 씨클원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여야겠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는 집을 세울 수 없듯이 배우지 않고는 창작을 할 수 없다. 대개 초고중 학생들이 보내는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은 여기에 기인된다.³⁰⁾

② 나는 문학 작품을 써 가지고 찾아 오든가 우편으로 보내 오는 동무들과 매일과 같이 대한다./그중에는 신인 지도부에 집중 지도 대상과 일반 지도 대상으로 등록된 동무들도 있으나 많은 동무가 아직 수준이 어린 동무들이다…(중략)…여기에서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동무들 중에는 공명심에 떠 있는 동무들도 있는 것 같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문학 건달》밖에 못 될 것이다. 이런 동무들을 알아 보면 대개 자기 직업에 충실치 않으며 빈둥거리는 동무들이다.³¹⁾

인용문 ①은 『아동문학』 편집부에서 문학씨클원들의 문학적 실력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인용문 ②는 작가 남응손이 정식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창작연습을 하는 문학씨클원들이 오히려 ‘문학 건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가 많으면서 그 문학적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이다. 기성 작가들이 예비작가 즉 문학씨클원들에게 문학적 가능성, 고도의 ‘문학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교육과 창작교육을 통한 대중의 문학적 역량 강화는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대중 교양 의지에 바탕 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 담론-프롤레타리아의 교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인텔리겐차의 제거는 필연적이라는 -이 문학장에 교묘하게 투입되는 증거들은 여러 자료들에서 폭넓게 포착되고 있다. 문학능력이 증진된 독자대중에 의해 작가의

30) 편집부, 『발표되지 않은 씨클작품들에 대하여-1958년 상반기년도 씨클 작품 총화』,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6. 74-78면.

31) 남응손, 『《문학 건달》이 되지 말자』,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2. 88-89면.

문학적 실력이나 윤리적 소양에 대한 비판이 속속 등장하는 것이다.

① 북중 기계 공장에서는 중앙에서 《유명》한 극작가 한 분이 파견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못 활기를 띠었다./《나는 이 거창한 생활의 격류 속에서 나의 미래 작품의 주인공이 될 새 인간들을 탐구하러 여기에 왔습니다.》/과건 예술가 작가 한 병각은 지배인과 첫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중략)...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 병각은 이 거창한 생활의 격류 속에 좀체 융합되어지지 않았다. 아니,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는 자기의 《미래 작품의 주인공》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와 점점 친숙해지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낚시질이었다! 그의 방 한 구석에는 흡사 골동품 상점을 련상케 하는 형형색색의 낚시'대가 지금도 여라문 개나 놓여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라!...(중략)...한 병각의 이름은 우리 독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생소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는 맹원으로서 10여 년간을 걸쳐 몇 편의 단막극을 썼을 뿐 이렇다 할 작품을 여지껏 내어 놓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는 문단에서보다 무대 예술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을 뿐이다. 그는 한때 극장의 한 책임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공명과 안가한 생활을 추구하여 부화 방탕의 진흙탕에 빠져 들어갔었다. 그리하여 당은 그에게 개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번엔 그를 현지에 파견하였던 것이다...(중략)...더우기 평복 도립 예술 극장에 회부한 그의 희곡 《청년들이 앞으로》가 그 자신이 그렇듯 랭담하게 비난하던 문학 씨클 책임자의 습작품 《교대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쉼표를 옮겨 왔다는 그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사기'군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중략)...우리 사회주의적 집단 생활에서 이러한 《작가》가 있을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우리는 작가 아닌 《작가》한 병각에게 말하노니 《작가가 되기 전에 우선 참된 인간이 되라!》고.³²⁾

② 루루이 언급되고 있는, 씨클원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에 대하여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었던가.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고귀한 창작 경험과 그들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침식을 미루며 거듭 허심히 읽기를 마지않는다./다 아는 바와 같이 《신인과 성실성》(청년 문학 8호)이란 표제 하에 신랄하게 비판 받은 김 진순의 도작 행위에 대하여 독자들은 물론 우리 씨클 문학 청년들은 더욱이 격분을 금치 못했다./그런데 유감천만하게도 지난해 뜻깊은 《아동 문학》창간 10주년 기념 현상 문예 작품 모집 사업을 악용한 정종문의 작품 아닌 작품 우화 《참새와 범》(아동 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현상

32) 장상명, 「작가 아닌 《작가》,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10. 30.

모집 3등 당선)을 또 대하게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이 《조소 친선》(1957년 3월 26일부 4면)에 번역 게재된 히크메트 에펜지예브의 우화 《파리 심장》과 그렇게 같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정 중문이 《파리 심장》을 조금 슬쩍 고쳐서 편집부를 속이고 독자를 속이려는 악랄한 행동이 아닌가./그러나 독자들은 그런 속임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중략)…한때의 사기적 탐욕과 위선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 문학》창간 10주년 기념 현상 모집 심사 위원회 위원들을 기만 모욕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수많은 독자 대중을 기만하였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소행이나? 《아동 문학》창간 10주년 기념 현상 모집 심사 위원들의 눈은 기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우리 독자 대중과 끝없이 긴 시간은 기만할 수 없으며, 기만하지 못할 것이다. 썩어진 정 중문의 어리석은 지혜로 빛어진 과렴치한 망상이 어찌 우리 앞에 길 수 있겠는가? 그는 우리 당의 올바른 문예 정책에 의하여 《카프》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10년 동안 성장하여 온 《아동 문학》의 의의 깊은 기념 현상 모집에 절도 행동으로 임했으며, 오늘 우리 나라 아동들을 높은 공산주의적 도덕으로 교양하는 《아동 문학》의 한 페이지를 더럽히었다.³³⁾

인용문 ①은 『문학신문』의 기자 장상명의 고발성 기사이다. 그 옆에는 “《때가 어느 때라고…》”라는 제목 하에 작가 한 병각이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펜대를 낚시대로 삼아 한가롭게 낚시질하는 삽화를 첨부되어 있다. “그의 정신 도덕 생활의 량명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대로 부르죠아 사상의 발로를 의미”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담아낸 것이다. 인용문 ②는 『아동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현상 문예 작품 모집 사업에서 ‘도적글’이라는 부적절하고 악랄한 행위가 존재했음을 함남 함흥시 서운동의 장원식이 비판한 것인데, 기성 작가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비윤리적 표절 행위가 대중독자에 의해 고발되는 내용이다. 문학장에 진입하려는 신인들의 도덕적 문제를 고발하려는 독자의 목소리를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내면에는 작가와 독자의 은닉된 갈등 관계가 포착되고 있다. 도적글조차 검증하여 걸러내지 못하는 작가들의 정신적 해이와 문학적 실력을 비난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가 ‘현실생활연구’라는 명목으로 기성 작가에 대한 일정한 제재

33) 장원식, 『독자의 목소리—우화 《참새와 범》은 김 진순의 《시》 《<<대한>의 직조공》의 쌍둥이다.』,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 78-80면.

를 가함과 동시에 현지 대중의 문화적 교양 강화에 그 작가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문학의 자율성 위에서 생성되는 ‘작가’의 권위와 비판적 문학 사상이 ‘독자’를 내세운 국가의 통제와 규율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징후이다. 작가들로서는 기성 작가의 품위가 위협되는 변동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식민치하를 견디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려는 열망 하에서 운동하려던 기성 ‘작가’는 결국 이중의 질곡에 포위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성 작가군, 아동문학 전문 작가군, 학제 내의 문학씨클 작가군, 조선작가동맹 산하 작가학원의 수료생들을 포괄하는 ‘작가’의 정의와 정치적 의미에 대한 전쟁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표지로 해석된다. 1958년 3월에 편집진이 안정된 후 8월부터 권두언이 게재되기 시작했고, 9월에 학제 내 교육장의 독자들로 구성된 창작 아동들을 위시한 독자들의 목소리를 정규 편집 체제에 삽입하였고, 1959년 1월호부터는 기성 작가 · 평론가들의 『문학을 공부하는 동무들에게』가 리원우의 글을 필두로 하여 연속 특집으로 계속 실렸다는 사실 등은 이미 ‘기성 작가의 권위와 위상’을 흔들고 와해³⁴⁾시키는 정치적 변동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북한 사회에서는, 아동문학의 정의 규정에 대한 논쟁을 갖고 리순영³⁵⁾과 백석 등이 저항하고 지키려했던 ‘문학의 자율성’이 빛을 잃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국가의 규율에 기성 작가 문단 전체가 휘둘리게 되고 차츰

34) 1957년 4월 25일 『문학신문』에서는 김책 제철소 문학씨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잡지 『로동문예』를 매월 발행하게 된 씨클원들의 활동 소식을 기사로 내보냈다.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타 공장 문학씨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문학 토론회와 문학 강연의 밤을 개최한 소식은 이미 당시 각 지역 노동자, 농민 등의 문학에 대한 의식이 점차 참여적으로 확대 ·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35) 1957년 아동문학교양장의 논쟁의 중심이었던 리순영의 『고양이』는 결국 미발표 작품이 되었다. 미발표 작품을 둘러싸고 비판적 논쟁이 뜨거웠던 것은 작가의 사상적 이견에 의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기보다는 국가가 요구하는 ‘문학 규정’의 의미에 편입되고자 하는 작가군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작가군의 충돌로 의심된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이 결국 ‘기성 작가군’의 전체의 자율적 힘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들이 당적 작가로 편입되면서 비판적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통제 국가로 진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즉 문학 지식인다운 저항이 ‘표명’될 기회는 사실상 북한 문학에서 1957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아동문학』에서 기성 작가로 구성된 편집진을 살펴보면, 전쟁 이후 문학편이 안정되기까지 작가들의 입지적 유동성은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정도 편집진 구성이 안정되어 일관된 편집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것은 1958년 3월호 이후부터이다.

1954년 1·2월호 합본에 표기된 편집진의 책임주필은 김조규, 편집위원은 김복원·리원우·박세영·송창일·윤두헌·천청송·강필주였다. 이 편집위 구성이 11월까지 계속되었다. 1954년 12월호에 표기된 편집진은 책임주필 김조규, 편집위원 박세영·송창일·강필주·강효순·박태영·김명수였다. 1955년 1월호에 다시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어 책임주필 엄호석, 편집위원은 박세영·송창일·강필주·강효순·박태영·김명수가 되었다. 다시 얼마 되지 않아 일부가 교체되어 1955년 4월호를 보면, 편집위원은 주필인 엄호석, 부주필인 윤시철,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박세영, 강효순, 김명수, 김학연, 송창일, 강필주, 송고천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이 1955년 12월까지 편집을 맡았다. 1958년 1월의 편집위원회 구성은 주필이 정서춘이었고 그 외 편집위원은 강효순·김진항·리원우·리진화·박팔양·박세영·신영길·송고천이었다. 두 달 후 1958년 3월에 일부 교체되어 편집위원은 정서춘이 주필이었지만 강효순·김진항·리원우·리진화·박팔양·박세영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12월까지 이 구성원이 지속되다가 1959년 1월부터는 정서춘이 주필로 연임되고 편집위원이 강효순·김진항·리원우·박세영·송봉렬·윤복진으로 교체되었다. 이 위원들이 적어도 1959년 6월까지 활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후로는 ‘편집위원회’라고만 단순 명기하고 있다. 12월까지 위원회 구성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편집진 구성의 변동을 살펴보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박팔양과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리원우가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으

로 참여한 것은 1956년부터 1957년 사이로 파악된다. 그리고 1958년 3월 이후 편집위원은 변동 없이 1년 주기로 연임되거나 교체되었다. 이러한 편집위원 구성의 안정화는 국민의 문학교양장을 구성하는 매체의 편집 방향까지 국가의 세밀한 지도와 통제 하에 포섭당하는, 즉 북한이 규율 국가로 진입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실제 국가가 요구하는 체제 방향성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성인문학교양장과 비슷한 구도로 운용되기 시작하던 때가 이때부터라는 심증은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권두언’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3-3. 주체 이데올로기 담론의 징후

1958년 1월호 『아동문학』에는 편집부에서 권두에 게재한 글 「행복한 조국의 품속에서」가 실린다. 2월호에는 「세계는 달라졌다!」, 4월호에는 「사회주의 락원은 이루어진다」가 맨 앞부분에 게재되었다. ‘권두언’임을 목차에서 표명하고 계속적으로 정론식의 정치적 권두언이 나타난 것은 1958년 8월 「미제는 몰러가라!」부터이다. 이 시기는 1957년 1차 5개년 경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공산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천명한 바로 그 때이다.

①너희네 풍속을 나는 몰라라.//그물 뜰 때 같아선/부지런도 하더니만...//걸리는 대로 잡아 먹고/닥치는 대로 빨아 먹고도/언제나 차지 않는 검은 주머니//하 잡아 먹더니/오늘은 네 차례 왔나부다/네 가슴에 피 마르는...//바람'결에 흔들리는 홉겍질 -/네가 낳은 새끼들이 널 파먹었구나/남의 살 파먹던 네 버릇대로//너희네 료리를 나는 몰라라./같은 것 있다면 단 한 가지/그것은 다름아닌 제국주의자.³⁶⁾

②봉녀야! 너도 여기 있구나./로동당원인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영영 소식이 없던 나의 동무야! 8년 만에 여기서 우리 만났구나.//진실한 로동당원의 가슴에 안겨/민청원의 손'길을 굳게 잡고/그들과 함께 너는 죽었구나./조국 앞에 참된 사람들과 함께 -/감감한 굴 속, 차디 찬 물 속에/너 이렇게 산사람처럼 변함 없

36) 서만일, 「벌레에 대한 시-거미」,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3. 42면.

음은/원쑤에 대한 증오 둘 같이 굳어져/그대로 불멸의 동상이 되었느냐//가슴에 소중히 얹혀 있는 네 손은/죽어서도 지켜야 할 우리의 영에./공화국 기'발을 간직하러 함이나/소년단 휘장을 간직하러 함이나.³⁷⁾

인용문 ①은 1958년 3월호에 실린 서만일의 『벌레에 대한 시 4편—거미, 거머리, 파리, 하루살이』 중 『거미』 전문이다. 『문학신문』의 편집위원이었으며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인문화협회 부위원장이었던 서만일은 동물들의 형상을 아동들에게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것은 1957년의 논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 규정된 아동문학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인용문 ②는 ‘증오심의 미학’을 동원하여 정치적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계급 교양을 성취하려는 박승수의 『너처럼 살리라』의 일부분이다. 이 시에는 “지난 초여름, 락연 광산에서는 원쑤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 학살 당할 수 많은 애국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중에는 락연 중학교 인민반 4학년이었고, 소년단 열성자이었던 조 봉녀 동무의 시체도 있었다. 그는 가슴에 공화국기와 소년단 휘장을 품고 있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다.

1958년 북한 아동문학교양장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학 기능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은 혁명가요 2편이 더불어 게재되었다는 데서 정치적 과급 효과가 극대화되게 된다. 『빼오넬가』와 『자유가』가 1958년 2월호에 실린 것이다.

① 어게동무 세 동무 빼오넬 동무/우리들은 나 어린 프로레타리아/올막쫄막 동무야 다 나오너라/골목골목 모여서 한뭉치 되자.//또또또또 공나팔 빼오넬 나 팔/공장에서 농촌에서 높이 부르자/꿍주리고 헐벗은 우리 동무들/두 팔 걷고 나와서 진을 치잔다.//어린 병정 신병정 빼오넬 병정/우리들은 나 어린 프로레타리아/온 누리 동포야 다 나오너라/붉은 기'발 아래서 싸워 나가자.³⁸⁾

②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자유권 없이

37) 박승수, 『너처럼 살리라』,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1. 54-55면.

38) 『빼오넬가』,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 68면.

는 살고도 죽은 것이니/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 버려.//피압박 어린이여 어서
 자라서/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원썬야 너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레닌의
 싸움법이 여기도 있다.//차라리 다 죽어서 자유혼 되여/이 몸 쓰고 종 노릇 나는
 아니 해/자유권 없이는 살고 죽는 것이니/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 버려.³⁹⁾

새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아동문학』 잡지에 유일하게 발표되었던 혁명
 가요, 위 인용문 ①과 ②에는 “이상 두 편의 노래는 영광스러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싸우면서 손수 지어 부른 혁명
 적 노래들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들은 이 노래 속에서 김 일성 원수를 따라
 일제를 쳐 물리치는 유격대원들과 그들의 사랑을 한몸 가득 지니고 싸우며
 자라나던 아동 혁명단원들의 씩씩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라는 편집부의
 안내 설명이 붙어 있다. 정치적 혁명가요를 통해 아동문학교양장에서 주체
 이데올로기 담론 형성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 현대 문학의 혁명적 전통은 세계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민족적 긍지로
 된다./지나던 때 일제 파쇼 통치 밑에서도 카프의 전투적 작가, 예술가들은 사회주
 의 레알리즘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하여 왔고 해방 후, 특히 공화국 창건 이후에
 는 전체 작가, 예술가들이 당의 문예 정책을 받들고 세계 맑스-레닌주의 문예
 전선에서 믿음직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는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후손 만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일사 불란하게 투쟁하고 있다.//...(중략)...혁
 명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이런 전통은 특히 1930년대 이후 항일 무
 장 투쟁의 전개와 더불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되었다./항일 무장 투쟁은 비단 조
 선의 프로레타리아 문예 운동을 지도 고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투쟁의 자체 행
 정에서도 전투적인 군중 문예 활동이 전개되었다./1935년에 반일 민족 통일 전
 선체인 조국 광복회가 창건된 이후부터는 더욱이 찬란하게 개화 발전하였다. 이
 것은 직접 전투 생활 속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 군대를
 섬멸하는 가렬한 전투 속에서도 씩씩한 혁명가는 우렁차게 흘러 나왔다.⁴⁰⁾

39) 『자유가』,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 69면.

40) 송영,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의 군중 문학 예술—주로 가요에 대하여』, 『문학신
 문』, 문학신문사, 1958. 4. 10.

인용문은 간도의 항일무장혁명투쟁을 혁명문학의 원류로 삼고자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의견에 해당하는 송영의 글이다. 이 ‘혁명전통’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한설야 위원장의 발언으로 카프 시기의 작가들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각인된 바 있었다. 송영의 이 글은 당시의 카프 주도적 입장, 즉 혁명전통 계승의 정통성은 카프에 있다는 한설야 위원장의 주장⁴¹⁾에 더하여 간도 지역의 항일투쟁, 즉 조선광복회의 활동까지도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의 등장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일성의 교시 이전에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을 문제제기한 초기의 의미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보다 먼저 『아동문학』잡지의 1958년 2월호에 ‘혁명가요 2편’이라는 제목 하에 시 작품들이 실린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미 ‘혁명전통’에 관련하여 문단 내부적으로 57, 8년도에 전환적 지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이처럼 1958년에 들어서서 『아동문학』지에 순수성을 지닌 창작보다 정치적 문학작품들과 정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순수한 서정 지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초기 아동문학교양장의 일부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정치성 배제의 ‘아동문학’과 서정적 동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이 아직은 교양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① 책상 우에 조그만 화분/싱싱 마늘씩도 자라 나는 밤//부드러운 웃음/온 얼굴에 담으시고/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네/우리 형제의 설빔--//아래'목에 숨' 소리 가뽕개/고이 잠든 내 동생/두 볼이 빨갛게 물들었구나.//훈훈히 몸이 더워 지길래/나는 옷저고리 벗었네//--창을 열으렴./어머니 말씀에/창문을 열어 놓으니//하늘에 총총 별도 많아서/창마다 총총 불도 많아서/아름답고 즐거운 우리의 마을.//또다닥 또다닥 또다닥 들려 오누나/어느 집에선가 다듬이 소리/아마 그 집에서도 바쁘가보지/설빔 차비하기 즐거운게야.⁴²⁾

41)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합평회에서 한설야 동지의 발언 요지』(『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6. 12. 13)에 이러한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42) 리종성, 『겨울밤에』,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 52-53면.

②로동으로 꽃피는/자랑 많은 우리 나라,/어데 가나 새 희망/우리 가슴 뛰노네.//아, 종달새 노래하는/살기 좋은 협동벌,/뜨락또르 우르릉/봄노래 부르며/오곡 백과 가꾸 가자/오곡 백과 가꾸 가자.//로동으로 꽃피는/자랑 많은 우리 나라,/어데 가나 새 희망/우리 가슴 뛰노네.//아, 갈매기 춤추는/푸른 바다 우리 바다/에헤야 데헤야/풍어기 휘날리며/저 바다로 달려 가자/저 바다로 달려 가자. (후략)⁴³⁾

인용문 ①은 1958년 1월에 발표된 리종성의 시 「겨울밤에」 전문이다. 농촌 마을에서 설빔을 기다리는 가족의 소중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지닌 공동체로서의 정서적 안온함이 충만하게 다가서는 서정적 시이다. 인용문 ②는 1959년 7월호에 실린 윤복진의 가사 「보람찬 우리 나라」이다. 전통적 장르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으로 변용하려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런 가사 13편이 특집과 비슷한 형태로 게재되었다.

산문 부문에서는 1950년대 전반기를 통해 소설, 동화 외에 오체르크류가 많이 게재되었는데 기행문이나 방문기, 취재기 등이 활성화되었다. ‘이야기’를 표제로 강감찬(최명익, 1955. 1) 등 역사 속의 영웅적 인물들을 다루거나 박원진 영웅(리영규, 1955. 6), 시인 조기천(리정구, 1955. 7), 리영호 영웅(강효순, 1955. 9-10), 차승화 ‘로력 영웅’(김승권, 1958. 8) 등을 연구 취재하여 발표하였다. 전반기 소련, 중국의 번역물들은 점차 줄어들어 1950년대 하반기에는 창작물과 기행문이 산문의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산문⁴⁴⁾에서 김정일의 탄생이나 장군봉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1955년 당시 영웅의 서사가 실제 일반 인민대중 속의 영웅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일체계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1950년대 교양장에서 영웅의 교육적 의도와 효과는 정치성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체계나 주체사상의 정치적 교육에 관해 문단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던 변동기 아동문학교양장의 텍스트는 통일국가 통합교과 교재 구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면밀한 후속

43) 윤복진, 「보람찬 우리 나라」,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7. 16-17면.

44) 박태훈, 「이야기-백두산 천지」, 『아동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7. 47-51면.

연구가 요청된다.

4. 나오며

북한문학사에서 1950년대 아동문학교양장은 사회 변동기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통해 고찰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독서교육과 창작교육을 통해 독자의 위상이 강화되어가는 시기는 1954년 경부터였고, 이를 견제하려는 기성 작가들의 권위적 노력들이 시도된 것은 1955년 경부터였다. 국가 주도라는 체제 의도와는 달리 기성 작가들은 창작교육보다는 독서교육에 치중하며 독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나갔고, 이 때문에 독자대중과의 상당한 마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교육교양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던 것이다. 1957년경부터는 점차 정치적 논리가 스며들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졌었다. 기성 작가들의 내부 균열을 야기하여 정치적 힘을 잃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아동문학교양장까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치적 방향론이 인입된 것은 1958년부터였다. 이것은 당시 아동문학교양장을 대표하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아동문학』 편집위원들의 인원 구성의 변화로도 감지할 수 있다.

본고는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아동문학』 잡지를 통해 1950년대 문학교양장의 일면적 지형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 전체의 자료를 모두 구하지 못하여 미흡한 연구가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향후 자료를 보강하여 북한 정치사상 교육교양에 대한 실천적 상황의 전모가 드러나고 또한 각 작품들과 장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지길 바란다. 북한 사회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통일시대 교과통합론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주제어 : 북한, 아동문학, 교양, 독서교육, 창작교육, 조선작가동맹, 문학신문,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간형, 독자회.

< 참고문헌 >

- 강운빈,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인간개조리론』,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85.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동규·김형찬 편,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 영인본)』, 교육과학사, 2000.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북한), 1973.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북한), 1992.
- 박상천, 『주체사상의 형성과 북한문학』,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6.
- 사회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해설 논문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북한), 1978.
- 오정애, 『조선현대아동소설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93.
- 이영미,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3.
- , 『북한 문학교육의 동향 고찰』,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4.
- , 『북한 문학교육의 내적 동학』,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4.
- 전태성, 『사상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91.
- 정룡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북한),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Children's Literary Cultivation of North Korea in the 1950s

—focused on *Children's Literature* of the Central Committee of Chosun
Writers' Association

Lee Youngmi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hildren's literary cultivation of North Korea in the 1950s based o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typography of “cultivation outside the school system” that played a certain role as education within the regime. It's noticeable that the signs of social changes were reflected on literary education and cultivation for children in the 1950s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history of North Korea. It was in 1954 that the status of readers began to rise through reading and creation education on the inside. The year of 1955, however, saw the emergence of authoritative efforts by the existing authors to deter such a movement. As opposed to the political intentions led by the government, they tried to raise the bar for readers to enter the scene by concentrating more on reading education than creation education. As a result, they engaged in considerable conflicts with general readers here and there. In those days, there was a change to the perception of who were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cultivation. In 1957, controversies appeared on the matter

as political logic gradually sank in, which caused the existing writers to crack from the inside and accordingly to lose their political power. In 1958, the socialist regime started to infiltrate the political thoughts into the field of literary education and cultivation for children.

Key Words : North Korea, children's literature, cultivation, reading education, creation education, Chosun Writers' Association, literature newspaper, Juche Ideology, communist human type, readers' meeting

이영미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63-9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대우 209-304

scarlet@hanyang.ac.kr

이 논문은 2008년 8월 7일에 투고되어 2008년 9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